'키스 먼저 할까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드라마

리얼 어른 멜로 표방…깊은 여운 남기며 종영

삶 · 죽음 · 사랑대한 당연하고 의미있는 메시지

리얼 어른 멜로를 표방한 SBS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24일 종영했다.

손무한(감우성)과 안순진(김선아)의 만남과 사랑은 한번쯤 음미해볼 한 내용이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손무한은 죄책감에서 시작돼 사랑으로 발전했고, 파산 직전인 안순진은 200억 재산을 가진 '숙주' 손무한에 '기생'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고 사랑으로 이어졌다.

손무한의 죄책감은 이렇다. 안순진의 어린 딸이 아폴론 제과에서 만든 젤리 과자를 먹고 죽었다. 손무한은 그 광고를 만든 책임자다. 안순진은 비오는 날 손무한에게 찾아가 딸 죽음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했다.

광고제작자가 그 정도의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만남과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는지는 보는 게 흥미로웠다. 둘 다 만남 의도는 불순했지만, 서로 사람과 인생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성찰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다.

손무한이 존엄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등 슬픈 인연으로 묶인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을 보면서 사랑, 슬픔,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쏟아낸 두 남녀 연기자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

손무한은 어쩌면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50번째 생일을 맞았다. 안순진은 일부러 모른 체 하며 출근했다. 홀로 집에 남겨진 손무한은 401호 이웃과 작은 소동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손무한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안순진에게 '은둔형 도토리'라고 불렸을 정도로 다른 이들과 교류가 없던 손무한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분명 손무한은 달라졌다. 그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안순진 덕분이었다. 안순진도 변했다.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손무한 곁을 지키고, 그와 사랑하며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생일파티가 끝나고 손무한은 친구 황인우(김성수)에게 "이제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어. 내일도 살아야겠지. 오늘처럼"이라고 말했다. 안순진이 손무한에게 준 생일선물 만년필에 '손숙주'가 아닌 '손기적'이라는 이름이 씌여진 것도 흐뭇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언제나 그렇듯 잠에서 깬 안순진은 손무한을 향해 "굿모닝"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손무한은 눈을 뜨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난 안순진은 떨리는 목소리,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애원하듯 손무한을 깨웠다. 이 순간 TV앞 모든 시청자가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손무한이 죽을까봐, 안순진 곁을 떠나게 될까봐.

그때 손무한은 눈을 떴다. 그의 "굿모닝" 인사말에 안순진도, 시청자도 모두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리고 덤덤하지만 깊은 감정이 새겨진 안순진의 내레이션이 들려왔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된다. 그는 살아 있다".

리얼어른멜로라는 장르처럼, 어른들의 솔직하고 도발적인 사랑으로 시작한 이 드라마는 쌓아온 스토리를 터뜨리며 극을 이끌었다. 슬픈 인연으로 묶인 두 남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했다. 결과적으로 '키스 먼저 할까요'는 사랑으로 한 생애가 다른 생애를 끌어안은 이야기였다.

여기에 감우성, 김선아, 오지호, 박시연, 김성수, 예지원으로 이어지는 명품배우들의 찰떡 같은 연기는 극의 스토리, 극중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몰입도 있게 만들었다. 특히 감우성의 자연스러운 감성 연기는 김선아의 코믹 연기마저 감싸안았다. 솔직, 도발, 감성 등을 자유롭게 넘나든 대사와 스토리, 감각적 연출 또한 퀄리티를 높였다.

흔히 20대 청춘들의 섬광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아름답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사랑도 충분히 가슴 설레고 아름다울 수 있다. 오히려 어른들이라 더 진솔하고 깊은, 가슴 시린 사랑을 할 수도 있다. 손무한, 안순진처럼 말이다. 이 당연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여준 '키스 먼저 할까요'는 한동안 시청자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이 드라마는 중후반 한때 도돌이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해 성찰해보게 하는 기회였다.

정규편성 확정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명과 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가 정규편성을 확정 지었다. 파일럿 2회 방영 만에 들려온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비난으로 인한 논란도 이어졌다. 명과 암이 뚜렷한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첫 방송된 MBC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결혼 13일 차 며느리 민지영, 개그맨 김재욱의 만삭인 아내 박세미, 워킹맘 김단빈의 이야기로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며느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댁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현실과 똑같다는 반응 속 첫 방송 시청률 5.3%(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2회 5.0%를 기록했다. 5%대의 시청률로 선방한 것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화제 몰이에도 크게 한몫했다.

'손님도 가족도 아닌 며느리'라는 자막처럼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우리 현시대의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남편과 병행해야 할 아이들의 육아를 며느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실과 결혼 후 독립된 가정임에도 자녀 가정에 간섭하는 시댁의 모습, 남편의 중재자 역할 부재, 시댁에서의 며느리 위치, 며느리의 역할이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녹여냈다.

이것은 비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 등장하는 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상한 나라는 대체 왜 며느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선 가족 전체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호평만큼이나 방송 이후 여파도 만만치 않다. 출연진 및 가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혹시나 방송 이후 출연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작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박세미의 남편인 김재욱은 방영 직후 SNS상에서 뜨겁게 자신을 비난하는 글과 마주해야 했다. 이를 의식한 듯 폐쇄했다.

출연자 중 한 명인 김단빈은 "살다 보니 검색 순위에도 올라 보고 별일이 다 있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를 찍으면서 정말 이런저런 방송국의 모습도 보고 알게 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나 응원 주시는 분들, 대놓고 욕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각자의 나라에 사시는 분들일 것이다. 뭔가 씁쓸하기만 한 거 같아 기분이 참 묘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SNS를 통해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진민 당신은 괜찮아? 나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숨어 있지 않으려고"라는 글과 '#이상한나라의며느리 #김단빈 #나도 할 말 있다 #마음을 이야기해야겠어'라는 해시태그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정성후 프로듀서(콘텐츠협력2부 부국장)는 25일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김재욱 같은 경우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비난 글이 많아 일단 SNS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무언가 그 안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바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삶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프로듀서는 "단순히 누굴 욕하기 위함이거나 그 집의 변화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시청자의 집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게 프로그램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댁뿐 아니라 며느리도 쌍방으로 변해야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며느리 개인, 시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우리의 습관, 문화와 관련이 있다.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자각해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규 편성 이후와 관련해선 "(파일럿에 출연했던) 출연진과 현재 논의 중이다. 파일럿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 여러 타입의 며느리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기대를 당부했다.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뮤직 어워드서 신곡 최초 공개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신곡을 최초 공개하는 역대급 컴백을 예고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s, BBMA)측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5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8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방탄소년단이 퍼포머로 참여하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

빌보드 측은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그룹이자 지난해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한국의 보이 밴드"라고 소개하며 "방탄소년단이 5월 20일에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새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의 컴백 무대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상 후보에 이어 월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까지 확정 지으며, 글로벌 스타의 위엄을 입증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 두아 리파(Dua Lipa), 션 멘데스(Shawn Mendes)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이날 무대는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만 할 수 있다는 컴백 무대까지 설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멋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 후보에 올라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데미 로바토(Demi Lovato), 션 멘데스(Shawn Mendes) 와 수상을 놓고 경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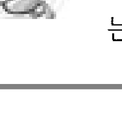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8일 세 번째 정규앨범 LOVE YOURSELF 轉 'Tear' 발매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음력 3월 11일)

▶쥐띠 언제나 자기 주관을 분명히 내세우며 생각하라. 남에게 잘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속을 차리며 베풀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라. 5, 6, 8월생 ㄱ, ㅇ, ㅂ 성씨 자기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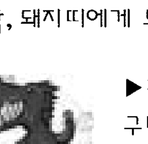
▶소띠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것은 좋으나 지금 처한 상황을 안다면 자존심을 버리라. 앞길을 내다보기 힘든 법이다. 진실만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1, 3, 5월생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푸른색이 길하다.

▶호랑이띠 변동하려는 일 시기상조다. 이상은 높으나 금전이 따르지 않으니 아니 하는 것만 못 하겠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4, 6, 12월생 애정으로 고민하는 격이다. 상대 또한 갈등을 느끼며 그대를 주시하니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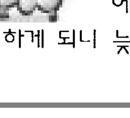
▶토끼띠 생각한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다 보니 가정에 불화가 심화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지금 상황을 가족과 함께 의논하면 해결할 길은 반드시 열린다. ㄱ, ㅈ, ㅇ 성씨 서로 위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용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다. 현재는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 뜨고 있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격이다. 2, 3, 5월생은 ㄱ, ㅈ, ㅍ 성씨와 갈등을 빚는다.



▶뱀띠 행과 불행은 마음에서 온다. 나를 다스릴 때 가정 또한 웃음꽃이 피겠다. 7, 10, 12월생 혼자 하는 일이 힘겹다 해서 중단하지 말고 동업으로 재도전하라. 번창한다. 북, 서쪽 닭, 돼지띠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띠 심신이 불안하고, 신념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는구나. ㅂ, ㅊ, ㅎ 성씨 밤마다 산란한 꿈속에서 헤매는 격이다. 내 위치를 지키고,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5, 8, 11월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듬으라. 가족을 생각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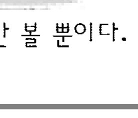


▶양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4, 6, 12월생 ㄱ, ㅅ, ㅈ 성씨 혼자 고민하던 것 있다면 동북쪽 사람 덕에 해결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식 걱정까지 하게 되니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가야 한다.

▶원숭이띠 무슨 일이든 속단하지 말고, 계획이 완전히 성립한 뒤 변동하라. 가족을 편안하게 하겠다면 내 고집대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 애정도 상대를 잡으려면 이해심과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닭띠 상대를 제압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계획성 있는 처세를 보이라. 1, 4, 6월생 성급함을 자제하고 서서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ㄱ, ㅅ, ㅁ 성씨 상대방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하라. 없으면 없는 대로 대처해야지 허세를 부리면 화가 미친다.

▶개띠 넓은 길을 놓아두고 좁은 길을 걸으며 위험 속에서 산다. 5, 7, 8월생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니니 허망할 뿐이다.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흰색, 빨간색이 길하다.



▶돼지띠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중도에 끝낼 수는 없다. 4, 9, 10월생 애정도 진퇴양난이다. 눈치만 살피면서 살아가겠다. ㄱ, ㅇ, ㅊ 성씨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손해만 볼 뿐이다. 미련을 두지 말고 새 장을 열라. 투기는 삼가야 한다.